

경희대-경희사이버대, '미래 대학' 육성 맞손

학점·교원·캠퍼스 등 공유 이어
교육·연구·학생·행정분야 협력
지속가능한 대학교육 방향 제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강화 기대



양교법인 경희학원의 두 대학인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가 지난 13일 서울캠퍼스에서 양교 연계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전면적·본격적 협력을 시작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2030년 대학 절반이 사라지고,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칼리지 등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오늘 양교 협력은 경희대의 성장과 생존을 찾는 기회가 되고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박영식 경희대 대외협력부총장)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가 학점·교원·캠퍼스 공유에 이어 행정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규 학위 대신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변화하는 국내 고등교육 트렌드 변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두 대학인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13일 서울캠퍼스에서 양교 연계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전면적·본격적 협력의 시동을 걸었다. 두 대학은 기존 교육·연구·학생 분야에 이어 행정분야 협력을 통해 미래 대학 만들기 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두 대학은 앞서 지난 2001년 경희사이버대 개교시부터 학생들의 학점교류, 교원 공유, 캠퍼스와 시설 공유를 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기에 행정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최근 대학 교육의 트렌드가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런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교는 이를 위해 ▲교육·연구 등 학술 교류 ▲학점 및 실습 등 학생 교육지원 ▲콘텐츠·설비·시설 등 인프라 전반 ▲교원·직원 교류 ▲문화프로그램 공동 개최 ▲기타 양교 발전을 위한 각종 교류·협력 등 6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같은 학교법인 소속인 두 대학의 교류 협력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양 대학 주요 교무위원과 부처장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교류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희대에서는 이호창 서울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해 강근 국제캠퍼스 부총장, 박영국 대외협력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고, 경희사이버대에서는 김혜영 부총장과 김지형 기획재정처장, 신봉섭 교무처장, 백은영 글로벌·대외협력처장 등 주요 인사가 배석했다.

이호창 서울캠퍼스 부총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교육 철학과 가치는 물론 UI (University Identity)와 캠퍼스를 공유

하는 양 대학은 오늘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연계 협력을 시작한다”면서 “교육뿐 아니라 행정 분야 협력도 추진하고, 오늘 협약을 계기로 양 대학이 미래 교육을 위해 전면적으로 힘을 합치자”고 교류 협력의 의의와 의지를 드러냈다.

두 대학의 교류 협력은 국내 첫 사이버대 개교 이후 온라인 교육 분야를 개척해 온 경희사이버대의 혁신 교육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영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은 “2001년 최초의 사이버대 개교 이후 18년간 온라인 교육이라는 새 분야를 개척해왔다”면서 “사이버대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양교 동반성장의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대학의 교류 협력은 온·오프라인 교육 강화는 물론, 학령 인구 감소와 학위 중심 대학 교육의 위기 속 지속가능한 미래 대학 교육의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국 경희대 대외협력부총장은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2030년 대학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인용하면서 “대학의 위기라고 불리는 이 시점에서 코세라, 유다시티 등이 추진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칼리지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오늘 협약은 경희대가 성장하고 생존의 길을 찾는 기회이며, 변화에 대응하고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고등교육계에서는 기존 학위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대학의 강화를 일반에 공개하는 온라인공개강좌(MOOC·Massive Open Onlike Course)가 대표적이다.

세계 최대 온라인공개강좌 사이트인 코세라(Coursera)를 통해 전세계 수천만 명이 대학 강의를 듣는다. 포스텍도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코세라에 강좌를 개설, 수강생에게 전자수료증을 준다. 국내에서도 교육부 주도로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케이무크(K-MOOC)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케이무크 학점을 인정받는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가 2030년에 현존 대학 절반이 도산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근거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미래인간과학스쿨(재난방재과학 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한방건강관리학과,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등을 신설하고 문화예술경영전공 등 미래지향적 학과 개편을 통해 3개 학부, 34개 학과(전공) 체계를 마련했다. 이들 학과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국내 첫 대학생 로봇게임단인 광운대 로빛 소속 학생들이 지난 15일~17일 대구 엑스코 전시장에서 열린 2018 대구국제로봇산업전 'R-BIZ 챌린지, 터틀봇3 오토레이스' 부문에서 1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금상), 3위 제어로봇시스템학회회장상(동상)을 수상했다. /광운대학교

광운대 로봇게임단 '대구국제로봇산업전'서 2관왕

광운대학교(총장 유지상)는 로봇게임단 로빛(RO:BIT)이 지난 15일~17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 전시장에서 열린 '2018대구국제로봇산업전'의 'R-BIZ 챌린지, 터틀봇3 오토레이스' 부문에서 1위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금상)과 3위 제어로봇시스템학회회장상(동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 R-BIZ 챌린지는 전 종목 예선전에 500여 팀, 1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대회로 본선에만 205팀 618명이 참가했고, 그 중 광운대 학생들이 참가해 수 상한 터틀봇3 오토레이스 부문에는 예선전에 70여 팀, 본선에는 19팀이 진출해 3일간 경기를 치렀다.

한성대 박재홍 교수 제8대 한국발레협회 회장에 선출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예술학부 박재홍 교수(사진)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외곡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발레협회 임시총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20일 밝혔다. 박 교수는 3명의 후보자 가운데 55%의 득표율로 회장에 선출됐다.

상(2000), 한국발레협회 당चे르 노브르 상(1998)을 수상했다. 2005년부터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직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성대 입학홍보처장 보직도 맡고 있다.

박 교수는 “명예로운 협회, 역량 있는 협회, 네트워크 협회로 회원과 함께하고 발레계와 사회에 기여하는 한국발레협회로 거듭나겠다”고 신임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 기자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하세요”

한국장학재단 12월17일까지 접수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만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8일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현 고3이나 재수생 등 내년 신입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재학기간 중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해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재학생들은 이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구제 신청은 재

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이다.

1차 신청 재학생 중 등록금 고지서 발급 전 장학금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학생에 한해 고지서 상 우선감면이 가능하다.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으로 우선감면 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기 부담하면 되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마감일(12월 17일)에는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하는게 좋다.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 20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학생의 거주지와 가족관계 정보가 행정자치부나 대법

원 공적정보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1회만 하면 되므로,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받았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으면 추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성적 등 심사 통과자에 한해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과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고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실(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대학생 “출세의 조건 1위 경제적 뒷받침”

알바몬-잡코리아 1403명 설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출세나 성공하기 위해서 학벌보다는 경제적 뒷받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알바몬이 잡코리아와 함께 대학생 1403명을 대상으로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3.7%가 성공의 조건으로 ‘경제적 뒷받침’을 꼽았다.

3년 전 같은 조사에서 성공의 조건 1위로 꼽힌 ‘학벌 및 출신학교’는 20.2%로 2위로 밀려났다. 이어 대학생들은 △자신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14.0%), △인맥 및 대인관계 능력(12.9%), △집안의 배경(8.6%)이 차례로 5위 안에 올랐다. 이밖에도 △성실성(5.6%), △지적 능력(4.2%), △시류 및

흐름을 읽는 안목(3.9%), △운(2.7%), △외모(2.0%), △출신지역(1.2%) 등을 성공의 조건으로 꼽았다.

‘개천에서 난 용’이 ‘금수저’를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길 수 있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이는 3년 전인 2015년 같은 조사 결과(14.9%)에서 약 4%p 하락한 것이다. 반면 ‘사실상 이길 수 없다’(33.6%)는 응답은 ‘이길 수 있다’는 응답의 약 세 배 많았고,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섞인 응답(55.7%)이 가장 많았다.

결국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3년 전보다 ‘집안의 배경 없이 스스로 성공을 일구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한편 대학생 5명 중 4명(82.1%)은 ‘취업 핸디캡이 있다’고 답했다. /한용수 기자

현대차

‘전공 제한 NO’ 정비 인턴 채용

현대자동차가 이달 28일부터 2018년 현대차 정비 인턴 채용을 시작한다.

현대차는 이번 채용을 통해서 본사 및 전국 22개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자동차 고장을 진단하고, 고난도 정비를 수행할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다.

현대차는 채용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동차 전공자뿐만 아니라 IT, 전기, 전자, 기계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모집한다.

28일 오전 11시부터 12월 10일 오후 2시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성민 기자 ysw@